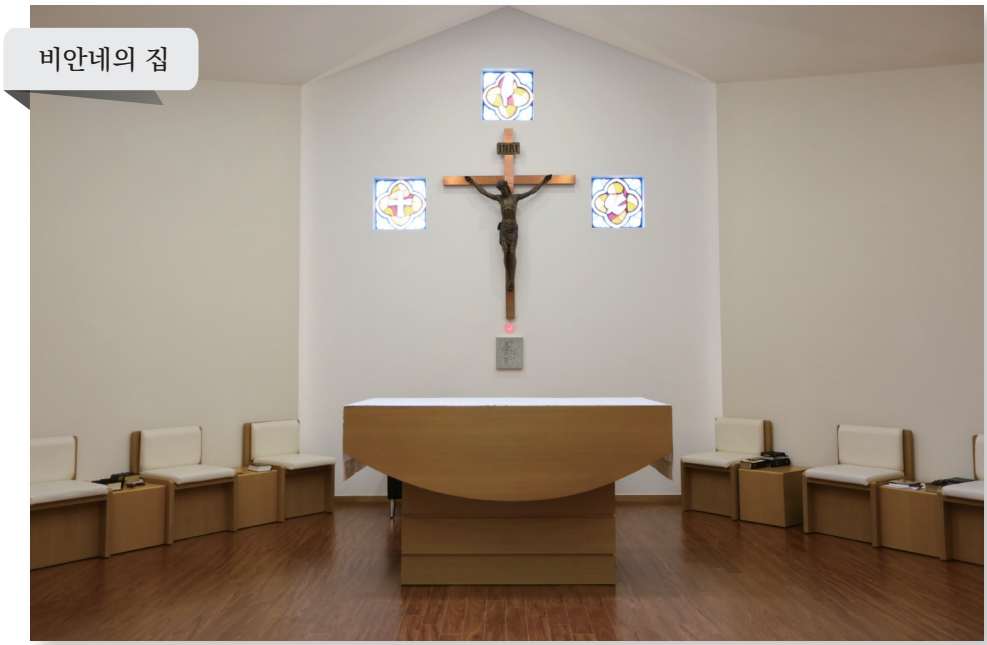
의정부주보

우측 QR코드를
휴대폰에서 QR코드 스캐너로 읽어주시면
주보를 소리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연중 제28주일 –　　2019년 10월 13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헌 • **편집** 홍보국 • **제821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설립 2013년 2월 14일　**전화** 사무실 031-850-1400　**주소** 경기도 양주시 삼숭동 104-16

제1독서 2열왕 5,14-17

화답송 시편 98(97),1.2-3ㄱㄴ.3ㄷㄹ-4(◉ 2 참조)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2티모 2,8-13

복음 환호송 1테살 5,18

◉ 알렐루야.

○ 모든 일에 감사하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너희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이다.◉

복음 루카 17,11-19

영성체송 시편 34(33),11

부자들도 궁색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리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기원하며 매일 저녁 9시에 주모경을 함께 바칩니다.

돌아오지 않은 아홉 사람

김경민 레오 신부
풍동 부주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병에 걸린 열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 중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려 돌아온 사람은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 한 명 뿐이었고, 다른 아홉 사람은 그냥 가버렸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을 때면 저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아홉 사람에 대해 묵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점에만 집중하여, 그 병의 치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나병은 죄로 인한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며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런 그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외로움에 지내야 했고 수시로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을 홀로 싸워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사제에게 가는 동안 몸이 깨끗해진 자신을 발견하였을 때 그 동안 겪어야만 했던 수많은 서러움과 고통에서 해방 되었다는 큰 기쁨에 사로잡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주님의 자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주님을 위한 자리는 마련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들은 그저 어서 빨리 자신의 몸을 사제에게 보이고 가족들에게 돌아가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쁨 안에서만 살아가는 아홉 사람의 모습은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총에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들 역시 오늘 복음의 돌아오지 않은 아홉 명의 나병환자들과 같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또한 큰 어려움이 닥치거나 무엇인가 아쉬울 때에만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청하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기쁨에 취해 간절히 주님을 찾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고는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 되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역시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지만 다른 아홉 사람과는 달리 자신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은총을 주신 주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양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의 걸음마다 함께 계시는 주님

이애리 루치아 / 화정동 성당

2019년 5월 3일.

우리 가족이 드디어 성가정이 되었다.

아빠가 빨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모님께 간절히 전구를 청한 엄마의 기도가 짧은 시간만에 기적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빠, 세례 빨리 받자."라는 엄마의 말에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알았다고 대답했다. 그날 저녁에 신부님을 모셔와 아빠는 요셉이라는 세례명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

정말 간절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다. 아빠가 언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빠가 은퇴하고 받으려나, 아니면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 대세로 받으려나.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인데, 하느님께서 아빠를 당신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빠른 시간 안에 아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여전히 생생하게 기억난다.

두 손을 마주 모으며 기도손을 하면서 신부님께서 하는 말마다 아멘. 이라고 대답했던 것과 성체를 모셨던 것. "이제 요셉 형제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이에요."라는 신부님의 말씀에 아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는 많은 분들에게서 세례를 축하받았고, 또한 어떤 분에게 묵주를 선물 받고 신부님께 축복을 받았는데 그 묵주가 내가 기도하는 묵주보다 알이 조금 더 크지만 똑같이 생겼던 것에 깜짝 놀랐고 아빠도 당신의 묵주와 내 묵주를 비교하면서 세심히 봤던 것에 기억난다.

아빠는 지난 60년간 하느님도 성모님도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엄마와 내가 하느님을 믿고 성당에 다녔기에 보았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말할 때마다 70% 물들었다고 했었다. 마치 하얀 도화지에 예쁜 물감이 서서히 물들어간 것처럼.

어떤 누군가의 방해도, 불만도 없이 너무도 평화롭게 세례식이 진행되었고 세례를 받아들이는 아빠의 모습은 보는 사람이 흐뭇할 정도로 사랑스러웠고 순수해 보였다. 그리고 하루 반만에 아빠는 우리 곁을 떠나갔다.

5월 5일. 날씨도 정말 아름답게 좋았던 날, 처음으로 우리 세 가족이 미사를 같이 드릴 수 있을 거라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주일에 아빠는 이 세상을 떠

젊음의 향기 수상작

났다.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고 한 달도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지 9일 만이었고, 엄마와 나의 9일 기도는 채워지지 못했다.

아빠를 살리고 싶었다.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한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라는 나의 지향은 몇 개월만 더, 일 년만 더, 내가 결혼할 때까지라고 점점 늘어났다.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고 싶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하느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랐다.

인간을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앞에서 나는 그저 주님께서 나를 향해 후- 입김을 불으시면 힘없이 날아가는 민들레 홀씨같은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아빠를 잃었다는 슬픔이라는 심연에 깊게 빠져 허우적댔지만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온전히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이었다. 엄마와 나는 아빠를 생각하면 슬픔에 잠기고 마음 속 한 부분이 찢겨져 나가고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니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 '아빠를 잃으면 나는 성가도, 기도도 그 무엇도 못하게 될 거야.'라는 생각은 없어지고 오히려 내 머리와 마음 속은 하느님께 향한 성가가 맴돌기 시작했고 감사와 찬미를 담은 기도를 드리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빠가 돌아가신지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그렇다. 하루하루 아빠를 생각하면 너무나 그립고 두렵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괜찮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평화,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였다. 고생 끝에 얻어지는 평안함이나 휴양지에서 느끼는 여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련과 어려움, 환난 중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평화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느끼며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보석을 발견하고 용기를 갖는 것.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아닐까?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인 "평화"를 가슴속에 깊게 새기며 하느님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걸음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고통이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용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부디 지금 이 마음을, 내가 하느님 안에서 느끼는 평화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느님께서는 확실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도 그분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 / 선교사목국 성서사목부 담당

현대 유사종교의 뿌리 2

신령파의 영향을 받은 김백문, 박태선 계열의 인사들이 분열하며 사방에서 구세주를 자처하던 1960년대에 이들과는 다른 계열의 신흥 유사종교들이 나타난다.

구원파

60년대 초, 선교사 딕 욕(Dick York)과 케이스 글라스(Kays Glass)가 한국에 와서 '선교학교'를 연다. 여기에 참여했던 이들이 소위 '구원파'를 형성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아닌, '자신이 이루는 깨달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에게 "당신은 거듭나셨나요? 구원을 받으셨나요?"라는 질문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렇게 불린다. 이들은 깨달음의 순간 의인이 되는 것이기에 이후에 회개(죄의 고백과 용서를 청함)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권신찬과 그 사위인 유병언은 '기독교복음침례회'를 만들고 세모그룹을 통해 사업을 벌이며 추종자들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고 강요하게 된다. 이에 반발한 이요한이 거기서 나와 안양에 '서울중앙교회'(대한예수교침례회)를 세운다. 한편 케이스 글라스의 설교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박옥수는 '기쁜소식강남교회'(대한예수교침례회)를 세우고 '기쁜소식선교회'와 대학생과 청소년을 목표로 하는 'IYF'(국제청소년연합)를 만들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침례회라는 명칭을 쓰지만 정통 침례교회와는 무관하다.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주장은 그리스도교의 것이 아닌 이교적인 개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은총으로 구원된다'.

안상홍 증인회

부산에서 안상홍 목사가 1964년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세운다. 안상홍은 주일을 지키는 것, 크리스마스, 십자가 등이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며, 구약의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고, 구약의 절기축제 특히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홍 사후(死後), '안상홍 증인회'는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언약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로 갈라졌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것이 후자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성령이라고도 하고 육화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한다. 현재 이 집단의 대표로 활동하는 장길자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1988년, 2000년, 2012년에 안상홍이 강림하며 종말이 온다고 설파하기도 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가끔 '주일이 아닌 안식일(토요일)을 지켜야 한다'는 이들이 있다. 바로 제칠일안식일교회나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이들이 그렇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이들이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며, 사도시대부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안식일 다음 날' 신자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전례력을 이루는 축제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며 기념이다. 예수님의 육화, 공생활, 수난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실 희망(재림)을 주일을 중심으로 일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한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다.

신/간/소/개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죽음 너머의 세계

그곳에 빛이 있었다

파트릭 텔리에 지음, 조안나 옮김 | 면수: 264면 | 14,000원
바오로딸
문의 | 의정부 031-875-7004, 일산 031-921-3016 www.pauline.or.kr

죽음 이후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다

죽음은 정말 삶의 끝일까? 삶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나는 것일까? 죽음 너머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루르드 의료 검증국에서 십 년 동안 상주 의사로 일한 저자는 자신이 만난 환자들이 겪은 병리학적 한계와 그것을 뛰어넘은 초자연적 현상, 곧 임사 체험을 과학과 가톨릭 신앙의 관계 안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한다. 정통한 과학자이기도 한 그는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을 조화시키면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 나서는 현대인들이 죽음 이후에도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뜨게 하고,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비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돕는다.

신/간/소/개

'죽음'에게 물었더니 '삶'이라고 대답했다

손영순 · 까리따스 수녀 지음 | 면수: 370면 | 17,000원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문의 |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02-771-8245

슬픔은 털어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덜어내는 것이다

출간 축하의 글 / 이 해 인 클라우디아 수녀

이 책을 펴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장하게 살다간 이들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지요?

참으로 다양한 이웃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의 모습,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게 해 주는 수녀님의 책은 직접 체험한 내용들이라 더 신뢰가 가며 절절하고 심도 있게 다가옵니다.

죽음과 삶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죽음이란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미리 묵상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수녀님의 책은 멋진 영적 선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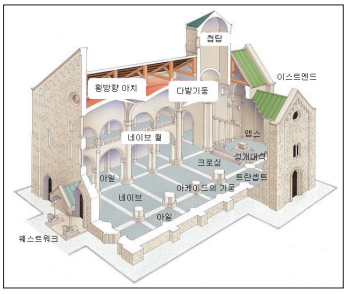
– 성당 이야기 12 –

서서히 드러나는 로마네스크의 특징들

초기 남부 로마네스크 성당

강한수 가롤로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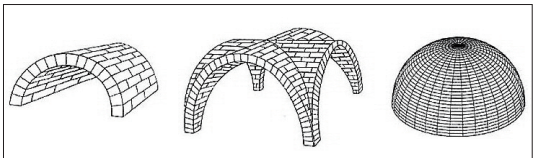
910년에 설립된 클뤼니 수도원은 개혁과 동시에 규모가 급속도로 팽창하여 954년 증축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2 클뤼니'라고 불리는 이 수도원 성당은 부르고뉴 지방을 넘어 프랑스 남부와 스페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서유럽 남부의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을 형성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지어진 성당의 건축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초기 로마네스크 성당의 명칭들

먼저 평면을 보면, 초기 남부 로마네스크의 성당들은 프레-로마네스크처럼 바실리카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 클뤼니에서 보인 트란셉트가 변화를 주고 있지만 아직은 크게 발달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장방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당의 몸통은 네이브와 양측의 아일로 구성되는 3랑식이 대부분이고, 어떤 경우는 아일 없이 네이브로만 구성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모듈 개념이 적용됩니다. 네이브의 베이와 아일의 베이가 아케이드의 연속적인 기둥들과 조화를 이루어 성당 공간을 단순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할이 트란셉트와 만나는 크로싱, 그리고 성가대석과 앱스까지 이어지면서,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기본적인 평면 형태를 구축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천장과 벽체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부르고뉴에서 이룬 성당 건축의 일체성과 수직성은 천장과 벽체가 석재라는 단일 재료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이미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에 석조 배럴 볼트 천장이 완성되었는데, 배럴 볼트라는 것은 원통을 반으로 자른 반원통 모양의 천장 구조물을 말합니다. 이 석조 배럴 볼트 천장을 네이브 월의 아치들이 받아주면서, 로마네스크 성당의 고유한 특징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배럴 볼트 천장에는 횡방향 아치가 덧붙여졌고, 이 아치가 네이브 월의 기둥과 만나서 하나의 구조물을 이룹니다. 또한 네이브 월의 종방향 아치도 네이브 월의 기둥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코어 기둥 주위로 여러 개의 대응 기둥이 더해지는 다발 기둥의 초기 형태가 이 시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럴볼트천장 (반원통형) | 그로인볼트천장 (배럴볼트의 교차) | 돔천장 (반구형)

앞에서 롬바르디아 장인들의 뛰어난 조적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시기의 벽체 재료는 주로 석재였지만, 롬바르디아의 영향으로 그 축조는 벽돌을 쌓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석재를 벽돌처럼 쌓는다는 것은 곧 벽체에 다양한 예술적 기법을 구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롬바르디아 밴드나 블라인드 아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외에도 크로싱 상부에는 첨탑이, 이스트엔드나 웨스트워크 쪽에는 종탑이 세워진 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초기 남부 로마네스크 성당은 11세기 전반부에 프랑스에서 완성되었고, 12세기 초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 전파되었습니다.

교구장 동 정

10월	13(주일)		사목방문 – 정발산 성당(10/12일~13일까지, 11시 견진성사)
	14(월)~18(금)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18(금)	20시	견진성사 – 백석동 성당
	19(토)	15시	2019년 본당 사회사목분과 연수 파견미사 – 신앙교육원

교구 소식

군종후원회 10월 월례미사안내

일시 10/16일(수) 10시 **장소** 진접성당(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58)
집전 유충현 시메온신부(을지 성당) **대상** 군종후원회원 및 관심 있는 모든 분

1,2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10/16(수) 10시 **장소** 창현 성당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0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신청기간** 10/16~12/16
부문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kr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2019년 하반기 본당 사회사목분과 연수

일시 10/19(토) 10:30~16시 **장소** 신앙교육원
대상 본당 사회사목분과장 및 위원(빈첸시오회 포함) **마감** 10/11(금), 연수비 1만 원
문의 사회사목국 031-850-1472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교구 공문(사회19-241, 8/23) 참조

10월의 어느 멋진 날(현대인의 힐링을 위한 음악회)

일시 10/25(금) 19:30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대성전 (3층)
내용 성가 및 가곡 합창, 악기 연주 외 **문의** 본당 사무실 031-836-1980

신앙의 눈으로 고전읽기 / 최대환 신부

장소 신앙교육원(의정부교구청 內)20시~21:30 **일정** 11/1('괴테와의 대화') 읽기
문의 선교사목국 031-850-1446~7 **회비** 1만 원(당일 현장 접수)

분단 74년, 화해와 평화를 기원하는 위령미사

일시 11/7(목) 14시 **장소** 북한군 중국군 묘지(파주시 적성면 답곡리 산 55)
공동주관 민족화해위원회, 정의평화위원회 **문의** 031-941-6235~6(민족화해위원회)
※ 11월 평화사도 월례미사는 없습니다. 평화사도들은 11/7(목) 적군묘지 위령미사에 참여해 주세요.

청년 수지에니어그램 안내(의정부교구청)

교육내용 나를 마주하고 존재 그대로 이해, 수용하는 여정 **강사** 미리내 천주성삼 수도회 수사님
일시 11/9(2차), 12/14(3차) 14시~18시 **인원** 각 차수별 의정부교구 청년 10명(선착순)
참가비 1인 1만 원(저녁식사 제공)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 031-850-1460

미사 · 피정 ▶▶

매듭을 푸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피정

일시,장소: 매주(화) 파티마 평화의 성당(점심제공) 10시, 기도, 11시 강의, 14시 미사

교구 철야기도회 은사를 통한 치유피정

일시: 매주(금) 21:10~01:20시 마두동 성당(10/18) /주제: 제6주 치유의 은사1
강사: 맹진학 라파엘신부(부산교구 지내주임)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3·4지구 성령기도회 밤기도

일시: 10/16(수) 19:30~21:40
강사: 김남순 아가다(인천교구 전 회장)
장소: 의1동성당 /문의: 010-3790-0496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상처치유를 위한 두 기둥-관상과 성찰 3 /최준열 신부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54)일시: 10/21(월) 13:30~16:30
문의: 010-5054-4470 /무료, 미사봉헌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0/27~29, 11/3~6(추자도), 11/11~13, 11/24~27(추자도), 12/2~4, 12/6~8 /연말연시: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눈꽃산행)
접수: 02-773-1463, 064-756-6009

말씀과 함께 하는 소비녀 떼제 기도

10/19(토) 14시, 문의: 010-5906-8099

[성심교육관] 묵주기도성월 2박3일 무료대피정

일시: 10/18(금) 22시~20일(일) 15시
장소: 성심교육관 031-262-7600

예수회 후원회 월례특강

주제/강사: 김대건 신부님이 우리를 위해 딱 좋은 이유/ 심백섭 신부
일시/장소: 10/16(수) 13:30~16:30 /예수회센터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신·구약 성경 완독피정 (8박9일)

일시: 10/26(토)~11/3(일), 11/15(금)~23(토)
문의: 010-3340-0201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하느님의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다: 가톨릭 사회 영성 2 /박상훈 신부
일시/장소: 10/18(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 /무료, 미사봉헌

한Ti아고 가는 길(성지순례길)

일시: 11/14(목), 11/21(목)~22(금), 12/10(화), 12/20(금)~21(토), 2020/01/10(금)~11(토)
1박2일/10:30~다음날15:30(6만 5천원)
1일/09:50~17:30(2만 원)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피정의집)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교육 · 모집 ▶▶

고양동성당 관리장 모집 안내

본당을 위해 성실히 일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자격: 60세미만 남성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본당신부님 추천서, 자기소개서, 이력서, 자격증 사본(1종보통 운전면허)
접수마감: 충원시까지 /면접: 개별통보
문의: 031-962-2543 (제출서류 반환불가)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가좌동성당 피아트성가대 반주자 모집

자격: 가톨릭 신자로서 피아노 및 오르간 전공자
지원서류: 이력서(서류 심사 후 면접)
제출방법: jawoon001@naver.com
마감: 10월 말
문의: 피아트성가대 단장 010-6234-4309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몬띠노인요양원)

보이스 트레이닝(전례교육도 가능)

대상: 모든 교우, 전례분과
문의: 50주년기념 영성센터 032-933-1528

이주민 치과진료봉사자 모집

대상: 월 1회 이상 진료가능한 치위생사
활동: 파주 EXODUS 치과진료봉사
문의: 031-948-8105, 김광한 스테파노

예수회 랑데부연수

주제: 자기선택과 자기결정
일정: 10/19(토) 13:30~20(일)16시
대상: 청년누구나(선착순30명)
장소: 예수회센터
참가비: 8만 원(대학생6만 원)
안내: magis.jesuits.kr
문의: 예수회 청년센터 02-3276-7706

가르멜센터 10월 안내 carmelcenter.kr

명사초청특강: 명동가톨릭회관3층, 무료강연
2020-21 영성코스II 안내: 16과목 11명의 강사진
성시간: 매월 마지막주(수) 13:30~16:30
청년신앙피정: 매월첫(토) 11시~18시
문화강좌: 숲해설, 초공예 초급, 서예반 수시모집 /자세한사항: 010-4149-1853

요양보호사 모집(3교대)

기관: 모현센터노인전문요양원(경기 포천시)
문의: 010-9795-0032

모현센터의원 간호사 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시스띠나음악원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중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 (주1회)

인천교구 지혜의 샘(북방선교기도공동체) 교육 일정

장소: 부천시 송내동 366-5 지혜의 샘
월,수: 성경 맥잡고 둘러보기
화: 성경 통독 길잡이
목,주일: 말씀치유 낮 기도회
금: 성시간, 말씀치유 철야기도회 19시~04:30 교육관에서 매일 미사와 묵주기도 100단이 있습니다.
문의: 032-343-1871 www.jwisdom.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띠앗누리 28기 모집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일시: 20.1/9(목)~19(일)

장소: 캄보디아 깜뽕꼬 마을

상세내용: www.obos.or.kr 이메일접수 (11/17(일)까지) 문의: 02-727-2292

타우영성심리상담소(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우울,분노,스트레스,관계&성격) 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앙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심리박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0 전기(주간) 신입생모집

석사: 신학, 철학, 사회복지학, 가톨릭사회복지학 ○○명 /박사: 신학, 교의, 조직, 영성, 환경(생태), 가톨릭사회복지학 (실천/정책/행정) ○명

일반 및 편입학전형: 10/14월)~24(목)

전형일: 11/8(금) /일반 및 편입학2차전형: 11/25(월)~12/5(목) /전형일: 12/20(금)

문의: 02-705-8668

http://gsot.sogang.ac.kr

안내 · 기타▶▶

늘푸른자활의집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www.green1004.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젊은이 첼기도 모임

일시: 매월 셋째 주(토) 13:30

장소: 파티마 평화의 성당

2020 가톨릭대학교 예수성심성당 혼인예식

웨딩 문의: 아라마크 010-3362-5401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11/4 베트남 하노이-하롱베이 5일 125만 원

11/4 유럽4개국 성모님 발현지 13일 368만 원

11/7 스페인 중·남부-포르투갈 12일 328만 원

11/19 성서못자리 22차 이스라엘 9일 375만 원

문의: 02-2266-1591, www.cpbctour.co.kr

가톨릭여행사 010-5235-3533

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3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대한항공)

1/20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대한항공)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1/22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69만 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 원

12/8 다낭, 마카오 6일 145만 원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 원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11/18, 12/3 289만 원

이스라엘 9일 1/5 299만 원

이태리일주 9일 11/7 279만 원, 1/21구정 299만 원

성모님발현지 13일 10/28 399만 원, 2/3 389 만 원

2020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주최: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장소: 필리핀 팍상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초4~중2 (모집인원: 50명)

기간: 2020. 1/4~2/16(6주) 비용: 420만 원

전화: 031-207-4982, 010-4442-4982

http://blog.naver.com/cficengcamp

제 5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2/9(3, 5주 선택)

가톨릭계 학교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대.일반: 1/4~2/23(5, 7주)

DCU 대학교 or ULearn 학원

세계 각국 연수생들과 함께

설명회: 10/20(일) 14시 명동성당내 가톨릭회관 2층 강당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0/22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터키.그리스) 12일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1/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교회 내 성폭력 피해 신고 안내

전화접수

031-850-1406, 850-1411

전자우편

clergy@uca.or.kr

성소 모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성 빈센트 드 뽈 자비의 수녀회	10/20(주일) 14시	성 빈센트 자비의 수녀회 (빈센트병원 뒤)	010-8833-8107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매월 셋째 주일 14시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010-2353-6219
스승예의수제자수녀회	10/20(주일) 13:30	스승예의수제자수녀회(미아리본원)	010-9816-0072
천주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0/19(토) 14시	개화동 수도원(서울)	010-3800-1579

2019. 10. 13

교회(3) : “성령의 관심사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로마 8,6)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교회가 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자들 곧,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교분리(政敎分離)” 또는 “제정분리(祭政分離)”의 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지배 권력을 두고 서로 대립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가 사회의 일들에 대해 그 어떤 관심이나 의견도 가질 수 없다고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 임무와 권한으로 보아 어느 모로도 정치 공동체와 혼동될 수 없으며, 결코 어떠한 정치 체제에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 (그러나,) 교회가 인간의 기본권과 영혼들의 구원이 요구할 때에는 정치 질서에 관한 일에 대하여도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때에 교회는 오로지 복음에 일치하고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 따라 모든 사람의 복지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에 속하는 일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2245항~2246항)

세상이 발전하고 변화해 가면서 인간의 삶은 훨씬 더 편리하고 풍요로워지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와 약육강식의 사회제도에 따른 불평등한 인권문제가 야기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현실이 단지 그들 자신의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기며 그 어떤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주지 않은 것이다.”(마태 25,45)라는 예수님의 호된 질책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전히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교회는 침묵해야 하며, 오직 자기 종교의 교리에 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가 정치의 핵심 임무이지만, 교회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비켜서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도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또 사목자들은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진력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복음의 기쁨 183항)

따라서, 교회는 이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약자가 외면당하지 않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일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을 따르며,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하느님의 질서에 따라 정의롭고 평화롭게 지켜야 할 사명을 수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적 고통 앞에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Con i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프란치스코 교황)